

국제공동연구 컨설팅 기업 대상 설명자료

한국전자기술연구원(KETI) | 인공지능데이터 · 보안연구센터

국제공동연구 사업 정보

사업 유형 · 사업계획서 구성 · 컨소시엄 전략 · 기업별 추천 트랙

KIAT 산업기술국제협력

IITP 국제공동연구

Horizon Europe

Eureka

Eurostars

ITEA4

발표 금승우 센터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데이터/보안연구센터

2026. 07. 20.



국제공동연구

서로 다른 국가의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— 자원 구성 방식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

일반형

- 한국의 펀드를 해외 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
- 국외기관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 형태로 참여
- 예산·평가의 주체는 모두 한국 기관
- IITP·KEIT 등에서 「일반형」으로 공고

양자형 (bilateral)

- 한국 펀드는 한국 기관이, 상대국 펀드는 상대국 기관이 사용
- 각국이 자국 규정에 따라 선정·평가·정산
- KIAT 국제공동연구사업이 대표적
- * bilateral(양자)이며 quantum(양자역학) 아님

다자형 (multilateral)

- 3개국 이상 컨소시엄, 공통 영문 사업계획서 제출
- 각국이 개별 펀드를 구성 (Eureka·Eurostars 등)
- 공동 펀드를 구성해 컨소시엄이 사용 (Horizon Europe 등)
- 중앙 관리기구가 선정·평가를 주관

다자형은 예산 운용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갈래로 나뉘며, 실무 절차가 크게 달라짐

① 국가별 예산 운용 (독립 예산형)

- 각국 정부가 자국 참여기관에 개별 집행 — Eureka, Eurostars
- 관리기구 선정(label) 후 국내 평가기관에서 재평가 필요
- 국내 선정평가 탈락 시 예산 없음 → 2단계 관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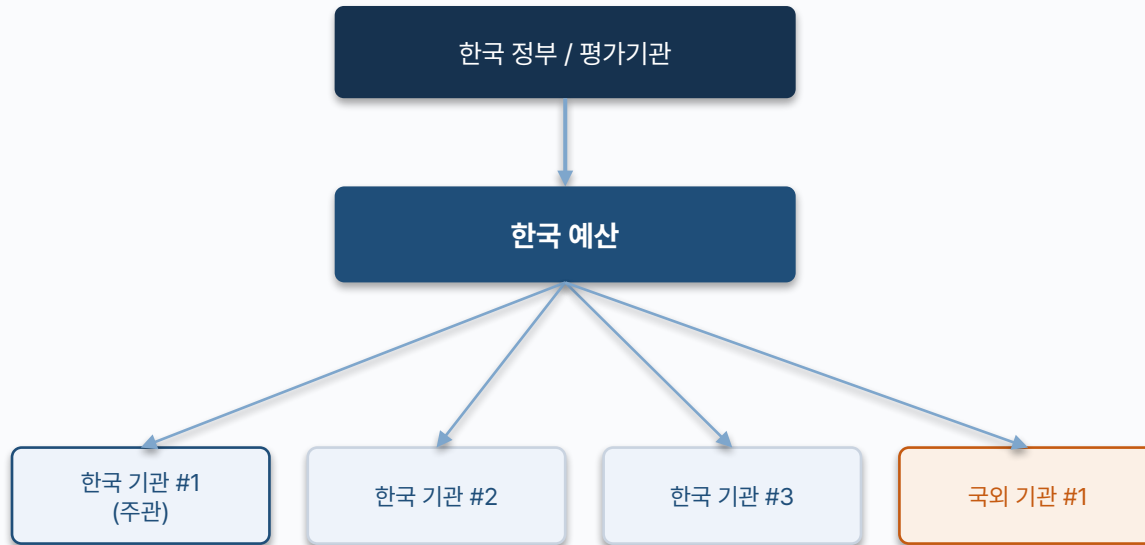
② 통합 예산 운용 (중앙 예산형)

- 중앙 관리기구가 예산까지 직접 집행 — Horizon Europe, CTAF
- 각국은 부담금을 중앙 관리기구에 납입
- 국내 평가기관 없음 → 전 절차를 영문으로 중앙기구와 직접 수행

일반형

IITP · KEIT 등에서 「일반형」으로 공고 — 통상 top-down 지정공모

예산 · 평가 주체 : 한국



국외 기관은 ①공동연구기관(독립 예산) 또는 ②주관기관의 국제공동연구비(위탁 유사) 로 참여

핵심

- 한국 예산 · 한국 규정 하나로 운영되어 절차가 가장 단순
- 상대국 규정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음

국외기관 참여 방법 ① — 공동연구기관

- 사업계획서의 공동연구기관에 국외기관을 명기
- 국외기관이 독립된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집행
- 국내 공동연구기관과 동일한 지위 · 보고 의무
- 상대국 기관도 국내 규정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함

국외기관 참여 방법 ② — 국제공동연구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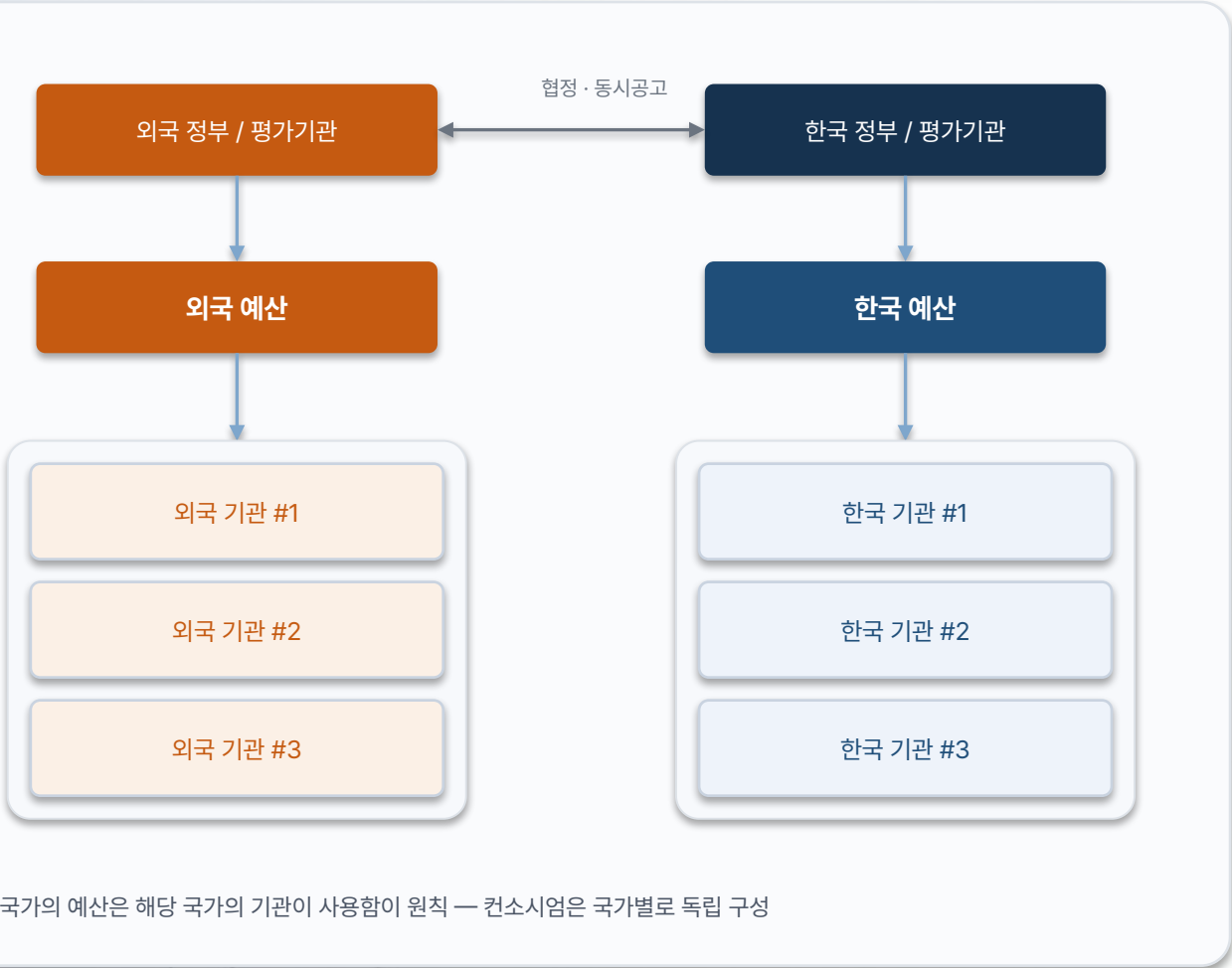
- 주관기관의 연구비 내에서 「국제공동연구비」를 할당
- 주관기관이 별도 계약을 통해 국외기관에 연구비 제공
- 「위탁기관」의 형태와 유사한 구조
- 국외기관은 사업계획서상 독립 주체가 아님

실무 유의사항

- 어느 방식이든 국외기관 몫의 예산 · 산출물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특정
- 국외기관 연구비 집행 증빙 방식을 착수 전에 합의

양자형 (bilateral)

IITP · KEIT · KIAT 등에서 「양자형」으로 공고 — KIAT 국제공동연구사업이 대표적 / top-down 또는 자유공모



예산 원칙

- 단일 국가의 예산은 해당 국가 기관에서 사용
- 국경을 넘는 예산 이전이 원칙적으로 없음

국내 기관

- 국내 규정을 따름 — 예산 · 선정 · 평가 · 정산

국외 기관 — 국내와 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

- funding이 아닌 soft loan 형태인 경우
- 민간 매칭 비율 · 참여 자격 제한 상이
- 예산 사용 범위가 국가별로 상이
- 상대국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

KIAT 양자형 실무

- 상대국 파트너 섭외 — 콜별 b2match 매칭 플랫폼 활용 (GT온라인 공지)

다자형 ① — 국가별 예산 운용 (독립 예산형)

Eureka · Eurostars 등 — bottom-up 자유공모 형식



공통 영문 사업계획서로 label 획득 → 각국이 자국 예산을 별도 심사 · 집행

구성

- 복수 국가로 구성된 컨소시엄
- 공통 사업계획서(영문) 제출
- 중앙 관리기구가 과제 선정 · 평가 진행

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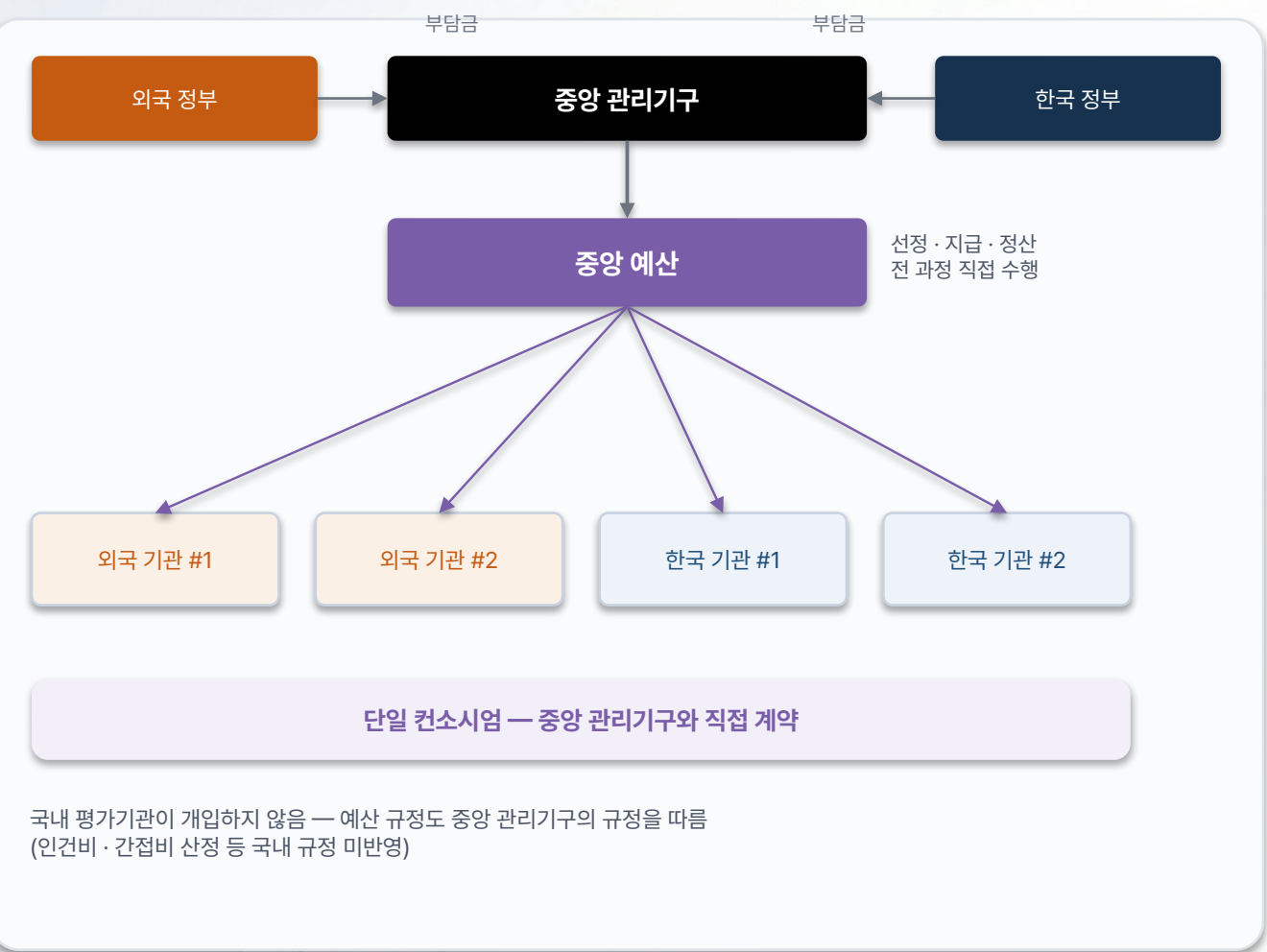
- 예산은 개별 정부에서 집행
- 예산 심사를 국내에서 다시 받아야 함 (국문 사업계획서)

절차 — 2단계 관문

- ① 관리기구에 영문 사업계획서 제출
- ② label 선정 후 국내 평가기관에 재평가
- ③ 국내 선정 후 예산 지급
- 국내 선정평가 탈락 시 예산 없음

다자형 ② — 통합 예산 운용 (중앙 예산형)

Horizon Europe · CTAF 등 — 일반적으로 top-down 지정공모



구성

- 복수 국가로 구성된 컨소시엄
- 공통 사업계획서(영문) 제출
- 개별 국가는 부담금을 중앙 관리기구에 납입

수행 주체

- 참여 기관은 중앙 관리기구와 모든 절차를 진행
- 선정평가 · 예산 지급 · 중간/최종 평가 · 정산

실무 유의사항 — 국내 평가기관 없음

- 영문 사업계획서 · 영문 보고서 준비
- 정산도 영문 정산 서류 필요
- 중앙 관리기구 예산 규정 적용 (국내 규정 미반영)

사업계획서 — Work Package 구성 및 R&R

국문 사업계획서와 영문 사업계획서의 구성 원리가 다름

국문 사업계획서

- 「연구개발내용」을 별도의 챕터에 꼭지로 구성
- 관리 · 추진체계 등은 다른 챕터에 분리 구성
- 연구개발 ↔ 관리가 문서상 분리됨

영문 사업계획서

- 연구 관리 · 산출물 관리 · 성과 홍보 · 사업화를
- 연구개발과 함께 포함하는 Work Package로 구성
- WP 단위로 예산 · 인력 · 산출물이 함께 묶임

통상의 Work Package 구성

WP1

Project coordination and management

과제 총괄 · 일정 · 리스크 · 재무 보고

WP2

Use case requirements description

유즈케이스 · 요구사항 정의

WP3 ~

주요 연구개발 WP

기술 단위별 연구개발 (복수 WP)

WPn

Integration and PoC

통합 · 실증

WPn+1

Joint dissemination and exploitation

공동 성과확산 · 사업화

WP1(관리)과 WPn+1(성과확산 · 사업화)은 영문 사업계획서에서 필수 — 국문 계획서 작성 관성으로 누락되기 쉬움

사업계획 — 국가별 역할 분담

직렬형과 병렬형 — 각각의 장점과 리스크가 명확히 다름

직렬형 역할 분담

- 국가별로 독립적인 역할을 구성
- 예) AI 서비스 개발 — 한국: 모델 개발 / 외국: 서비스 개발



문제점

- 타국 결과물에 대한 종속성 — 외국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한국 모델이 필요
- 사업화 모델에 대한 지재권 문제 — 한국 모델을 가져다 사용하는 구조
- 일정 지연이 상대국으로 그대로 전파

병렬형 역할 분담

- 동일 기능을 각국에서 나눠서 수행
- 예) 한국 PoC용 · 외국 PoC용 AI 모델/서비스를 각각 개발



노하우 공유 · 플랫폼/데이터 공유

문제점

- 국제공동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별도로 찾아야 함
- “각자 하던 것을 각자 한다”로 보이면 선정평가에서 불리
- 공유 결과물의 지재권 귀속을 사전에 정리해야 함

실무 권고 — 병렬형을 기본으로 하되, 공유 플랫폼 · 공동 데이터셋 · 상호 교차검증처럼 “함께 해야만 가능한” 요소를 최소 1개 WP로 명시하여 국제공동의 필연성을 입증

주요 사업 공고 확인 및 컨소시엄 구성 전략

국내는 공고 확인이, 국외는 사업설명회 사전등록이 핵심

국내

공고 확인

- IRIS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를 통한 국내 사업 공고 확인
-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이 필요하므로 공고 전 준비

파트너 섭외

- KIAT 국제공동연구는 콜별로 b2match 기반 매칭 플랫폼을 운영
- 기관 프로필 등록 · 검색 · 1:1 온라인 상담 지원
- 프로필 승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콜 마감에서 역산해 등록

국외 사업은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설명 · pitching · matching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— 참가 자체가 컨소시엄 구성의 출발점

국외

Eureka

- 각 사업별로 온라인 ·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진행
- 사업설명회와 병행하여 각 기관이 아이디어 제안 가능
- 사전 접수를 통해 pitching · matchmaking 지원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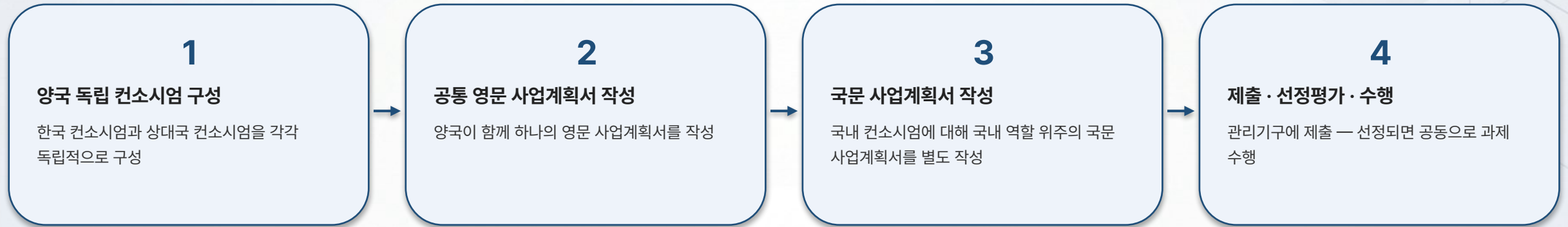
Horizon Europe

- 사업설명회와 함께 pitching · matching 지원
-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pitching 가능
- — 단, 특정 콜에 연계되어 있어야 함
- 오프라인 미팅 지원

둘 모두 사전 등록 필수

주요 사례 — 양자형 사업

KIAT 양자형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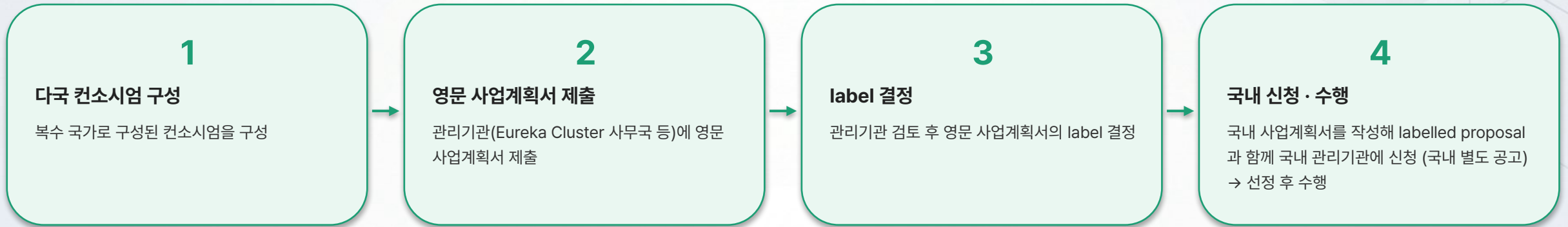


실무 유의사항

- 영문 · 국문 사업계획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, 두 문서의 역할 분담 내용이 일치해야 함
- 상대국의 예산 규정(soft loan · 민간 매칭 비율 · 참여 자격)을 사전에 확인
- 상대국 파트너 섭외는 KIAT가 콜별로 운영하는 b2match 매칭 플랫폼 활용 가능
- 양국 공고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상대국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
- 상대국 예산이 soft loan인 경우 기업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

주요 사례 — 다자형 사업 (독립 예산형)

통상 2개의 공고에 대응해야 함 — 중앙 관리기관 공고 + 개별 국가 관리기관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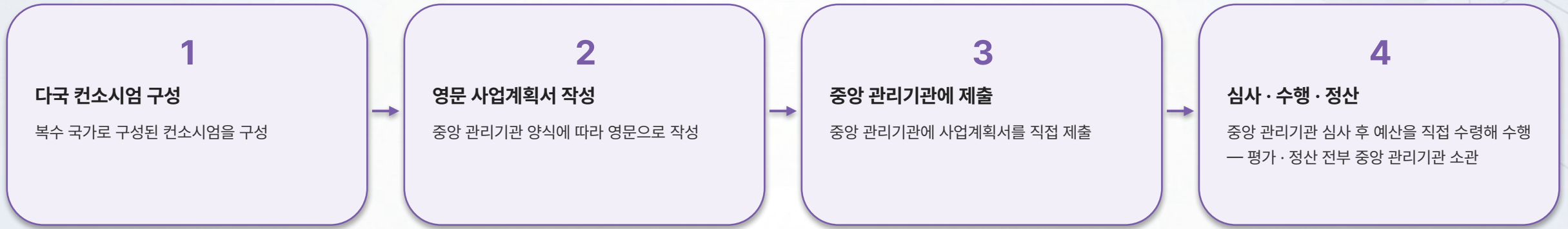


실무 유의사항

- label을 받아도 국내 선정평가에서 탈락하면 예산이 없음 — 2단계 관문임을 전제로 일정 수립
- 중앙 관리기관 공고와 국내 공고의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 필요
- labelled proposal과 국문 사업계획서의 내용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
- 국내 예산은 국내 규정, 영문 계획서는 관리기관 규정 — 두 체계를 병행 관리
- Eurostars는 SME 주관 · 2개국 이상 · 36개월 이내 요건을 우선 확인

주요 사례 — 다자형 사업 (통합 예산형)

국내 관리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구조



실무 유의사항

- 국내 관리기관이 없으므로 국내 규정에 익숙한 담당자가 오히려 혼선을 겪을 수 있음
- 인건비·간접비 산정이 중앙 관리기관 규정을 따르므로 기관 내부 회계와 사전 조율 필요
- 영문 정산 서류 준비 역량이 과제 수행의 실질적 병목이 됨
- 한국은 2025.07 Horizon Europe Pillar II 준회원 — 국내 재평가 없이 직접 수령
- 준회원 지위는 Pillar II 한정 — 콜이 어느 Pillar 소속인지 반드시 확인

기타 사항

일반형 사업의 지재권 활용 이슈 · 국제공동연구 효과의 제시

① 일반형 사업 (국내 예산을 외국기관이 사용하는 경우) — 지재권 활용에 대한 이슈가 있음

해외기관이 국내 비용으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활용 방안이 쟁점

국내 — 위탁사업의 경우

- 위탁사업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
- 국내 규정으로 지재권 귀속이 정리됨

국외 — 이런 규정이 없음

- 국내 연구비를 지급하고도 지재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
- 미국 대학 등은 용역 결과물의 지재권을 학교 소유로 내규에 명기한 경우가 많음

사업계획서에 지재권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② 국제공동연구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

산업통상부 국제공동연구

- 사업화 · 해외 진출 등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함
- 산업적 성과 중심으로 효과를 구성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

- 사업화 · 해외진출 · 인력교류 · 공동논문 등의 제시 필요
- 산업적 성과와 연구적 성과를 함께 구성

파트너 수배 방안

대상국 파트너 수배 방안 — 플랫폼 · 관리기구 · 대사관 · 현장 채널

1

사업 플랫폼 활용

해당 사업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/ 오프라인
플랫폼 활용
사업설명회 · matchmaking 사전 등록 필수

2

대상국 관리기구 접촉

대상국가의 관리기구에 직접 접촉
관리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상 기업 수배를
요청

3

주한 대사관 접촉

대상국가의 국내(주한) 대사관 접촉
대사관 산하 과학기술사무관 · 투자진흥청 등에
대상 기관 문의

4

전시회 · 학술대회

다양한 현장 채널에서 파트너 수배
전시회 · 학술대회 등에서 직접 접촉

대상국가 관리기구 예시 — 각국의 Eureka · Eurostars 국가 창구

스페인 CDTI

Centro para el Desarrollo Tecnológico y la Innovación
cdti.es

체코 TA ČR

Technology Agency of the Czech Republic
tacr.cz

영국 Innovate UK

UK Research and Innovation (UKRI) 산하
ukri.org/councils/innovate-uk

KIAT b2match 등 사업 플랫폼은 콜이 열려 있을 때만 운영되므로, 콜 사이 기간에는 관리기구 · 대사관 채널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